삼국시대부터 조선전기 화승·불모 '총망라'

최선일 위원, 〈불교장인 인명사전 삼국~조선 전기〉 발간

조선 후기 인명사전 이후 8년만
1400여 불교 장인 스님 정리해
불교미술사 연구 중요 기초자료
"작가 중심 연구가 필요한 시점"
근대편 집필 준비… 3년 뒤 회향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불교에는 빼어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불상, 불화, 전각들이 많다. 하지만, 이를 조성한 화승이나 조각승들이 누구인지를 알기는 쉽지 않다. 상량문이나 화기, 복장물들을 통한 단편적 정보만이 존재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조성 작가를 전문적으로 발굴하려는 학술 연구가 미진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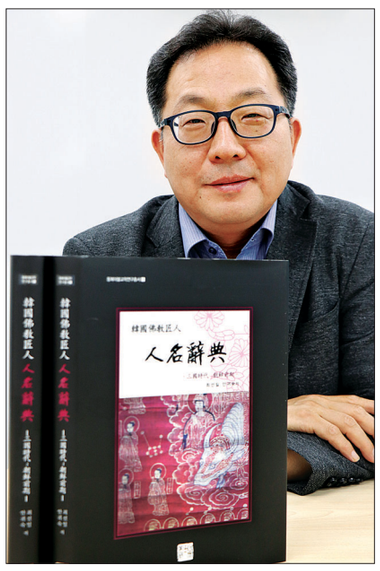
그런 의미에서 최선일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이 최근 내놓은 〈한국불교장인 인명사전-삼국시대~조선 전기〉는 주목할 만 하다. 삼국시대부터 조선 전기까지 수 많은 불교문화재의 작가들을 조명해 놓고 있어서다.

〈한국불교장인 인명사전-삼국시대~조선 전기〉는 1427명의 화승·조각승·각수·수철장·주종장·와장 등을 망라하고 있다. 또한 이들이 어느 작품에 참여했는지도 기록했다. 사전의 뒷부분에는 관련 작품의 도판과 참고문헌까지 적어 다른 연구자들이 참조할 수 있게 했다.

사실 최 위원의 이런 작업은 처음은 아니다. 이미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조선 후기 불교장인 인명사전〉이란 이름으로 불교조소·회화·공예와 전적·건축과 석조미술편을 잇달아 발간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다룬 불교 장인만 6227명이다.

이번 사전 작업은 5번째로, 나오기 까지 8년여 시간이 걸렸다. 그만큼 자료 취합과 정리가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임진왜란 이후 전소된 사찰들을 복원하느라 불사가 많았고 시기가 가까워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던 조선 후기와 달리 삼국시대부터 조선 전기까지는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최 위원은 "되도록 많은 사료들을 접해 장인 스님들을 정리하려 했다"면서 "그러다보니 욕심이 생겼고, 이전보다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술회했다.



약 10년동안 정리한 불교장인 수만 7600여 명. 이렇게 지난한 작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 위원은 "인간 중심의 미술사를 하고 싶어서"라고 질문에 즉각 화답했다.

그는 "내가 공부하던 시절에는 양식사 위주의 연구가 주류였지 작가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면서 "은사인 안귀숙 선생님의 화승 의겸과 주종장 사인 관련 논문을 읽으며 불교조각에서도 작가를 찾을 수 있는 판단이 들었고, 조각승 색난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후 문화재 지정조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찾으며 많은 장인들의 단편활동을 밝혀내고 이를 모아 인명사전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최 위원의 〈한국불교장인 인명사전〉 시리즈는 한국불교미술사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연구 성과이다.

중앙승가대 교수 정각 스님(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은 추천사를 통해 "문헌자료와 작품 이미지를 통해 탐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불교미술 장인들의 생애를 드러내고 밝혔다"면서 "풍부한 미술사담론, 그리고 미술사연구 분야를 보다 두텁게 만들어준 거대한 프로젝트"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최 위원은 인명사전 근대편을 준비 중에 있다. 총 2권으로 발간될 예정인 근대편은 집필에 3년 정도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최 위원은 "이름조차 남아있지 않은 무수히 많은 장인들의 공덕으로 불교문화재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게 된다면 우리 문화재가 더 많은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인명사전을 통해 잊혀진 장인을 한 명이라도 밝혀낼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설정 스님, "쌍용차 사태 해결, 함께 노력"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7월 11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이하 쌍용차지부) 대한문 분향소를 방문, 조합원들을 위로하며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날 조계종 총무원 국장스님들과 김득중 쌍용차 지부장, 양한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글=김지원 수습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33관음성지순례, 10년간 50명 완주 '눈길'

일본인 호시나 씨, 50번째로 순례 마쳐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08년 문화관광상품으로 개발한 한국전통사찰순례(33관음성지순례)의 완주자가 50명을 돌파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은 7월 9일 서울 견지동 사업단 3층에서 올해 7번째로 관음성지순례를 마친 호시나 토시히로(일본무역진흥기구 서울소장) 씨에게 완료증서를 수여했다. 호시나 씨는 여행가이드북에서 관음성지순례에 대한 소개를 접하면서 관심을 갖게 돼 지난해부터 딸과 순례에 나섰다.

호시나 씨는 "일본에도 절은 있지만 한국과 문화가 다르다. 한국을 잘 알고 싶어 관음성지순례를 하게 됐다"면서 "가장 인상 깊은 사찰은 도심 속 조계사다. 일본사찰은 묘지 개념이 있지만 전혀 다른 모습의 한국사찰을 볼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호시나 씨는 이외에도 수려한 풍경의 내소사에서 접한 고즈넉한 분위기가 기억에 남는다고 전했다.

사업단장 원경 스님은 "얼마 전 한국산사 7곳이 유네스코로 지정되는 기념비적인 일이 있었다. 호시나 씨가 다녀온 사찰 중에도 해당 사찰이 있다"며 "한국 전통문화를 간직한 사찰을 일본에도 많이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관음성지순례 사업은 한국의 전통사찰 중 관음사상에 기초한 33곳을 선정해 국내외 많은 이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008년 시작해 올해까지 총 50명의 내외국인들이 순례 완료 증서를 받았다. 윤호섭 기자



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오른쪽)이 관음성지순례를 마친 호시나 씨에게 수료증을 수여한 뒤 함께 기념촬영하는 모습.

월정사 오대산 명상마을 7월 28일 개원

월정사 오대산 자연명상마을(Odaesan Meditation Village)이 7월 28일 오후 1시 개원한다. 자연명상마을 이름은 영어 약자를 축약한 '옴뷔(OMV)'로 정해졌다.

월정사 측은 "2014년부터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정성 어린 솜씨로 공간을 빚어내 탄생한 자연명상마을은 삶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자신을 돌아보고 힐링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라고 밝혔다.

자연명상마을에 위치한 조정래 집칠촌에서 작가의 문학강의가 이뤄지며,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의 선문답 강의도 진행된다.

윤호섭 기자

"세계유산 등재 계기로 산사 유·무형 가치 인식 확대돼야"



세계유산 산사, 보존 방향을 듣다
조계종 문화부장 종민 스님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이하 산사)'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약 4년 동안 준비해왔는데, 회의할 때마다 108배를 하는 마음으로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등재 확정될 당시 위원장이 산사가 '1080번째로 등재됐다'고 하며 의사봉을 쳤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 감격해서 제대로 듣지 못했는데 전문위원들이 나중에 이야기하더군요. 부처님의 가피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산사가 잘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3000배하는 마음으로 사업을 진행하려 합니다."

1080번째 세계유산 등재 의미
"108배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와"
종단 중심으로 통합관리단 구성
수행 보존·변화 추진

조계종 문화부장 종민 스님〈사진〉은 7월 9일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머리를 풀며 등재 순간을 술회했다.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의 일부 등재 권고와 이후 정오표·외교지지협력문서 작성, 현장에서의 협상 등을 거쳐 21개 이사국의 7개 사찰 모두 등재 지지를 이끌어 내기까지 일련의 과정은 드라마 같았다. 조계종과 등재추진위원회는 그 드라마의 주역이었다. 특히 등재추진위원회가 작성한 정오표와 외교지지협력문서는 이사국들을 설득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결과적으로 정오표와 외교 자료가 일괄 등재에 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정오표와 지지자료가 우리를 설득시켰다'는 각국 대표단의 지지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등재의 기쁨도 순간이다. 이제 더 중요한 사업들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 등재보고서에 기술한 대로 산사 통합관리단(가칭) 구성을 통해 7개 산사의 통합적 보존·관리 방안을 내놔야 하는 것이다.

종민 스님의 기조는 단호했다. 유네스코가 산사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한 이유는 산사가 '유·무형 문화가 모두 공존하는 살아있는 유산'임을 인정한 것이기에 이를 조화롭게 보존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등재는 산사의 무형적 가치, 특히 스님들의 수행·교육·의례와 신도들의 신행까지 모두 문화유산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점 단위가 아닌 면 단위로 문화유산을 인식한 것이죠. 한국의 문화재 인식 역시 단순히 단일 문화재가 아닌 구성요소를 함께 보존 관리하는 방안으로 확대돼야 합니다. 산사와 같이 '살아있는 유산'은 더욱 면 단위의 보존이 필요합니다."

또한 종민 스님은 향후 구성될 산사통합관리단은 종단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함을 분명히 했다. 세간에 제기했던 '박제화' 등의 우려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종단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통합관리단은 홍보나 관광객 교육부터 사찰 보존·관리, 연구 등이 이뤄지는 기구입니다. 이는 각 사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연속유산이기 때문에 한 곳만 잘한다고 유산이 유지되는 것도 아니어서 모두 잘 보존돼야 합니다. 그래서 통합관리단이 필요합니다. 등재신청서에도 종단 주도의 통합관리단을 만들어 총괄 관리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스님에 따르면 통합관리단은 종단과 당해 사찰, 지자체, 문화재청이 참여하며 올 연말에는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조계종은 8월 중순 경 세계유산 등재 선포식을 개최한다. 이에 대해 종민 스님은 "7월 말경 유네스코에서 등재 인증서가 도착할 예정"이라며 "인증서가 도착하면 8월 중순에 세계유산 등재 선포식을 개최해 공식적으로 등재 소식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